

갤럽리포트 G20191212

2019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어제 예능방송인·코미디언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영화배우,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9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9년 11월 8~28일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5. 표본오차: ±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32%(총 접촉 5,282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19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선호도 82.0%로 3년 연속 1위
- 2위 류현진(38.7%), 3위 이강인(13.6%)
- 김연아-박지성 잇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손흥민-류현진
- 상위 10명 중 축구 선수 5명, 야구 선수 4명

2019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선호도 82.0%로 3년 연속 1위
- 2위 류현진(38.7%), 3위 이강인(13.6%)

한국갤럽이 2019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손나우두' **손흥민**이 82.0%의 압도적 지지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팀 토트넘 홋스퍼 FC의 핵심 멤버다. 빠른 돌파력과 양발을 자유자재로 한 강력한 슈팅을 지닌 선수로, 현재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선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독일과의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는 팀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러시아월드컵 이후에는 기성용에 이어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조제 무리뉴 체제 아래 소속팀에서는 전 경기 출장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번리전에서 70미터 넘는 거리를 질주해 터트린 '원더골'은 올 시즌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로 찬사를 받았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선수상을 받았고, 매년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상 최종 후보 3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2위는 LA 다저스의 **류현진**(38.7%)이다. 2015년 어깨 수술로 인한 2년 공백 후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 미국 진출 이후 최고의 기록을 거뒀다. 그는 박찬호·김병현 등과 달리 한국프로야구(KBO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선수며,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로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를 기록했고, 부상에서 복귀한 2017년 3위, 작년과 올해는 2위다.

3위는 발렌시아 CF 소속으로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13.6%)이다. 그는 올해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준우승을 견인하며 골든볼(MVP)을 차지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유스 선수상 수상, '21세 이하 발롱도르' 코파 트로피 후보에도 포함돼 '한국 축구의 희망'을 넘어 세계 최상급 유망주로 도약했다.

4위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4.7%)다. 지난 2015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대부분 기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3시즌 연속 20홈런을 기록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최근 2020년 시즌 팀의 새 유니폼 모델로 나섰는데, 내년은 텍사스와 7년 계약 중 마지막 해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피겨 전설' **김연아**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의 **기성용**이 공동 5위(3.9%),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박지성**이 7위(3.2%),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현역 축구 국가대표팀 수문장 **조현우**,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를 거쳐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이대호**가 공동 8위(1.5%)로 상위 10명 안에 들었다.

그 외 1% 이상 응답된 스포츠선수는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최근 10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최다 우승을 기록한 **박인비**, 올해 5월 은퇴 후 결혼 소식을 전한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화**(이상 1.2%)다.

▶ 2019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흥민	82.0	축구	토트넘 홋스퍼 FC
2위	류현진	38.7	야구	LA 다저스
3위	이강인	13.6	축구	발렌시아 CF
4위	추신수	4.7	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5위	김연아	3.9	피겨스케이팅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세계신기록 등
-	기성용	3.9	축구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7위	박지성	3.2	축구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등
8위	박찬호	1.5	야구	전) LA 다저스 등
-	조현우	1.5	축구	대구 FC
-	이대호	1.5	야구	롯데 자이언츠

질문)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9년 11월 8~28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갤럽리포트

김연아-박지성 잇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손흥민-류현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뀌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음에도 2017년까지 11년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팬들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박지성의 빈자리는 이제 손흥민과 류현진이 채운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했고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2019년 1위로 6년 연속 최상위권이다. 특히 올해 손흥민 선호도 82.0%는 지난 2009년 김연아의 82.8%에 버금가는 기록이다.

류현진은 2012년 8위,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인 2013년 1위, 2014년 3위였으나 2015년 부상으로 2년 공백기가 있었다. 2017년 복귀와 동시에 다시 최상위에 올랐고, 선호도 역시 상승세다.

매년 10위 안은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축구 선수가 5명, 야구 선수가 4명이며 이외 종목 선수로는 현역 은퇴한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가 유일하다. 축구, 야구 이외 종목 선수들의 상위권 진입에는 올림픽 등 세계 대회나 국가 대항 경기 내용이나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장미란(역도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양학선(도마 금메달)과 손연재(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 2016년 리우올림픽 박상영(펜싱 금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김은정(컬링 은메달) 등이 그 예다.

한편으로 김연아, 박지성, 박찬호 등 소위 ‘레전드급’ 선수들은 은퇴 후에도 공익 활동, 광고·방송 출연, 후진 양성 등을 통해 현역 시절과 다른 면모로 친근감을 더해 여전히 올해의 선수 상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 최근 13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박지성(57.6)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손흥민(24.4)
2위	김연아(55.9)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손연재(17.5)
3위	박태환(26.0)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추신수(16.9)
4위	이대호 (6.5)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김연아(15.1)
5위	박주영 (5.4)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기성용(13.1)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위	손연재(29.8)	손흥민(38.1)	손흥민(63.3)	손흥민(82.0)	
2위	손흥민(27.3)	김연아(13.4)	류현진(19.2)	류현진(38.7)	
3위	박인비(16.6)	류현진(12.8)	조현우 (8.8)	이강인(13.6)	
4위	김연아(14.5)	기성용(10.7)	황의조 (8.4)	추신수 (4.7)	
5위	박상영 (8.8)	추신수 (9.4)	김은정 (7.9)	김연아/기성용(3.9)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갤럽리포트 www.gallup.co.kr

모든 연령대에서 손흥민-류현진-이강인 순

올해는 예년보다 1, 2위로의 선호도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2019년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고, 그다음은 류현진-이강인 순이다. 이강인과 조현우는 저연령일수록, 김연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 2019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손흥민	(2위) 류현진	(3위) 이강인	(4위) 추신수	(5위) 김연아	(5위) 기성용	(7위) 박지성	(8위) 박찬호	(8위) 조현우	(8위) 이대호	
전체	1,700	82.0	38.7	13.6	4.7	3.9	3.9	3.2	1.5	1.5	1.5	
성 별	남성	845	85	44	13	5	2	5	3	2	2	
	여성	855	79	33	14	4	5	3	3	1	1	
연 령 별	13~18세	110	85	34	21	4	3	2	3	1	4	3
	19~29세	274	89	35	15	3	5	4	2	1	4	3
	30대	263	83	45	17	6	5	4	4	2	1	1
	40대	309	86	47	17	5	3	3	1	2	1	1
	50대	319	80	42	9	5	4	5	4	1	1	2
	60대이상	424	75	30	10	5	4	4	5	2		1
남	13~18세	57	89	42	22	3	2	1	2	1	2	5
	19~29세	144	90	40	16	2	3	6	3	1	5	2
	30대	135	86	51	16	7	1	3	4	3	1	1
	40대	157	87	50	16	7	1	4	1	2	2	1
	50대	161	85	44	10	5	4	6	5	2	2	3
	60대이상	191	78	39	8	5	3	5	4	3		1
여	13~18세	53	80	26	21	4	4	2	5	1	5	
	19~29세	130	88	28	14	4	7	2	1		2	4
	30대	128	79	38	18	5	9	4	3	2	1	1
	40대	152	84	45	17	3	4	3	1	1		1
	50대	159	75	40	9	5	4	3	3	1	1	1
	60대이상	233	72	24	11	5	5	4	5	1		1

질문)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9년 11월 8~28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갤럽리포트 www.gallup.co.kr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